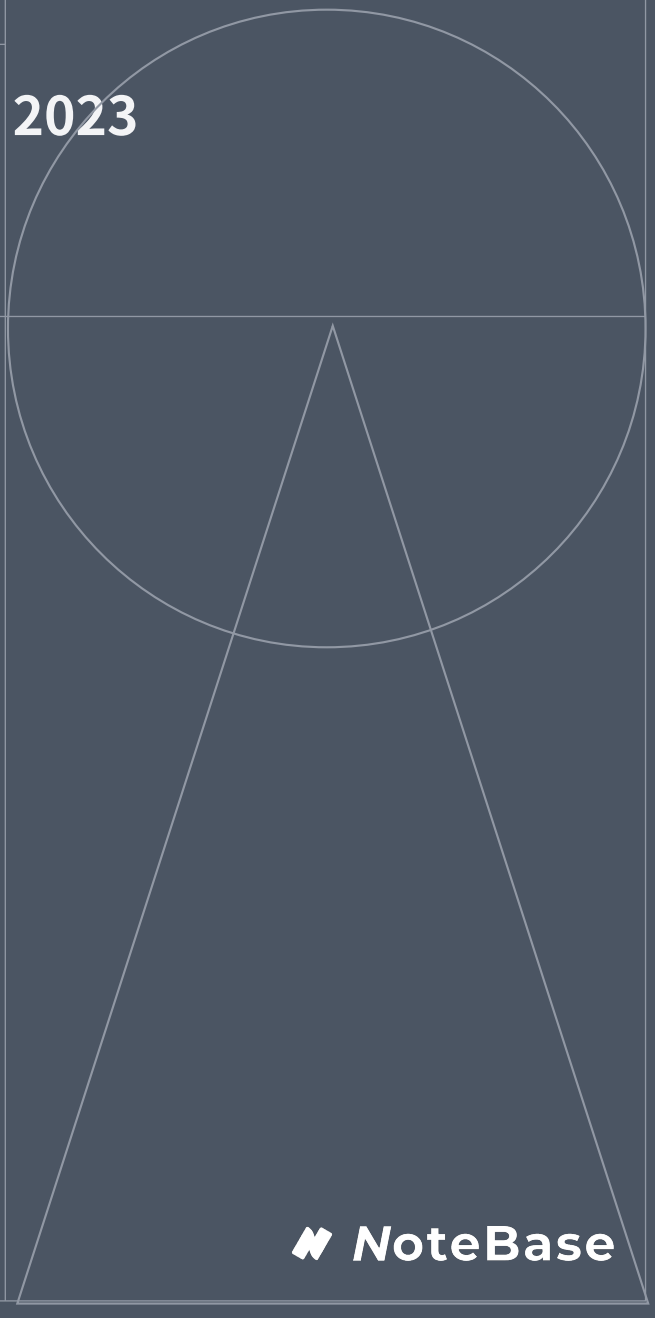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3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3

문 1. 다음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내 안전 동아리 '안전 지킴이' 대표 2학년 윤지수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기획한 안전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피해 통계에 따르면,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자동차를 피하다가 다친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학생들 절대다수가 사고 당시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려워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응 속도가 늦어져서 위험합니다. 따라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①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화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③ 도입부에 사례를 제시하여 관심을 끈 후에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청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표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과 도입·청자 고려 방식이 실제 발표 내용에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뢰도 확보는 조사 결과, 통계, 전문가 의견처럼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말의 믿음을 높이는 방식이다.
도입부는 발표의 주제나 목적을 밝히고 청자의 관심을 끄는 첫 부분이다.
청자 고려는 청자의 처지·요구·관심을 파악하여 내용과 표현을 그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발표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특정 위험 요인만을 중심으로 다룬다. '다양한 원인'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고, 해결책도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는 한 가지 예방 행동을 제시한다. 틀린 표현 '다양한 원인' → 올바르게는 '특정 원인을 들어 한 가지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이다.
② O: '작년 한 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피해 통계'와 '절대다수가 사고 당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는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객관적 근거를 들어 발표자의 주장의 신뢰도를 높인다.
③ X: 도입부에서는 인사, 발표자 소개, 안전 캠페인의 목적과 화제를 먼저 밝힌다. 교통사고 사례는 그 뒤에 제시된다. 틀린 표현 '도입부에 사례를 제시하여 관심을 끈 후에 화제를 제시' → 올바르게는 '도입부에서 화제와 목적을 먼저 제시한 뒤 사례를 제시'이다.
④ X: 발표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는 점은 드러나지만, 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요구·관심을 조사하여 내용이나 표현을 맞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청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 → 올바르게는 '학교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발표 대상이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청자 고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쉽다. 대상의 이름을 밝힌 것과 그 대상의 요구·상황에 맞게 내용을 조정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계·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신뢰도 확보에 해당한다. 발표 전략 선지는 실제 발화의 순서와 근거를 확인한 뒤, 선지의 '다양한', '도입부', '요구 고려' 같은 한정 표현이 정확한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사·통계 제시 = 신뢰도 확보, 대상 언급만 = 청자 고려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대표: 학교에 외부인이 아무 때나 드나들면, 소음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학교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주민 대표: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기를 선호하니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체육 시설 이용을 허용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의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업권 보장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학교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잘 준수한다면 9시 이전에도 시설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시간에 대해 주민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대표: 네. 주민 홍보 앱을 활용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나 더 제안할 것이 있는데, 수업이 없는 방학 동안은 주민들이 체육 시설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① 상대의 의견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다.
② 자신의 의견을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③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근거를 먼저 밝히고 있다.
④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여 새로운 제안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화 참여자가 상대 의견을 수용·반박하는 방식과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건부 수용은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다. 질문 형식의 제안은 '~하면 어떨까요?'처럼 의문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근거 제시는 주장에 앞서 이유나 상황을 밝히는 방식이고, 반박은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학교장은 주민들이 이용 시간을 잘 준수한다면 9시 이전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주민 대표의 제안을 조건을 붙여 수용한 것이다.

② O: 주민 대표는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체육 시설 이용을 허용하면 어떨까요?'라고 묻는다. 의문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안한 것이다.

③ O: 학생 대표는 외부인의 출입으로 소음·교통사고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한 뒤, 이용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④ X: 주민 대표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한 뒤,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 오전 이용안을 제안한다. 상대 의견을 반박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반박하여' → 올바르게는 '상대 의견에 동의하고 조건을 덧붙여 새로운 제안을 하고'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주민 대표가 오전 이용을 제안했다는 점 때문에 학생 대표의 의견을 반대한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주민 대표는 '동의합니다'라고 먼저 밝히고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므로, 반박이 아니라 수용을 바탕으로 한 보완 제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에서 '동의한다', '알겠다'처럼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표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그 뒤 조건을 붙여 다른 방안을 내면 조건부 수용·보완 제안이고, 상대 주장 자체의 문제점을 부정해야 반박이 된다.

암기 포인트

동의 뒤 조건 제시 = 반박이 아니라 조건부 수용이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① 대상이 지닌 속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② 청유형 어투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③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중심 소재인 '공'의 속성, 반복과 어조가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상징은 구체적 대상을 통해 추상적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 시의 '공'은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탄력과 회복력을 상징한다.
청유형 어투는 화자가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하거나 소망을 드러내는 말투이다. '너도 나도', '살아봐야지', '떠올라야지'는 서로를 북돋우며 살아가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성질을 부여하는 표현이다. 이 시의 핵심 정서는 모순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 내려는 긍정적 의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떨어져도 튀는',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의 속성을 통해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② O: '너도 나도', '살아봐야지', '떠올라야지'와 같은 청유적 어투로 화자가 자신과 상대가 함께 굳세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전달한다.
③ O: '공',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쓰러지는 법이 없는'과 같은 시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경쾌한 리듬을 만들고 회복의 의미를 강조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화자의 모순된 감정'이다. 이 시에는 상반된 감정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왕자처럼'은 공의 탄력적 모습을 강조하는 비유이며, 시는 떨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는 화자의 긍정적 의지와 격려를 표출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왕자처럼'이라는 표현을 의인화로 오인하게 하지만, 이는 공을 '탄력의 나라의 왕자'에 빗댄 비유이다. 더 결정적으로 시 전체의 정서는 모순이나 갈등이 아니라 회복과 전진의 의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핵심 소재가 반복될 때에는 그 대상의 속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이어 반복, 비유, 어조가 같은 정서를 강화하는지 살피고, 선지의 정서가 시 전체의 분위기와 어긋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튀는 공은 회복과 탄력, 반복된 청유는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이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세상에 불쌍한 것이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는고! 사람은 만물 중에 귀하기로 제일이요, 신령하기도 제일이요, 재주도 제일이요, 지혜도 제일이라 하여 동물 중에 제일 좋다하더니, 오늘날로 보면 제일로 악하고 제일 흉괴하고 제일 음란하고 제일 간사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로다. 까마귀처럼 효도할 줄도 모르고, 개구리처럼 분수 지킬 줄도 모르고, 여우보담도 간사한, 호랑이보담도 포악한, 벌과 같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파리같이 동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창자 없는 일은 게보다 심하고, 부정한 행실은 원앙새가 부끄럽도다. 여러 짐승이 연설할 때 나는 사람을 위하여 변명 연설을 하리라 하고 몇 번 생각하여 본즉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없고, 반대를 하려 하나 현하지변(懸河之辯)을 가지고도 쓸데가 없도다. 사람이 떨어져서 짐승의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 안국선, 『금수회의록』에서 —

① 대화를 통해 대상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② 감각적 묘사를 통해 대상을 개성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우화 형식을 통해 대상의 양면성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④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대상들의 갈등을 첨예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화 형식의 표현 효과와 서술 방식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동물들의 연설은 인간의 악행을 동물의 입에서 드러내어 인간 사회를 풍자한다.

핵심 개념

우화는 동물·식물·사물 등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삶이나 사회를 빗대어 교훈 또는 비판을 드러내는 형식이다. 이 글에서는 짐승들이 인간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말하므로, 인간의 간사함·흉악함·음란함 등을 풍자한다.
대화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통해 성격과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이고, 감각적 묘사는 시각·청각 등의 감각을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그리는 방식이다. 역전적 시간 구성은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시간 순서를 뒤바꾸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짐승들이 인간을 비판하는 연설이 제시될 뿐, 인물들이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중심을 이루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대화를 통해'이며, 올바르게는 동물의 연설을 통해 인간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다.
② X: 인간의 악행을 나열하고 있을 뿐, 시각·청각·후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여 대상을 개성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감각적 묘사'이며, 올바르게는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적 설정으로 인간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O: 동물에게 말을 하게 하는 우화 형식을 통해 인간의 여러 악행을 드러내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역설로 인간의 양면성과 부정적 모습을 풍자한다.
④ X: 글은 짐승의 연설을 들은 화자가 인간을 반성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뿐, 과거와 현재의 시간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역전적 시간 구성'이며, 올바르게는 우화적 역설을 통해 인간과 짐승의 위상이 뒤집힌 상황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의 '역전'은 시간 배열의 역전이 아니라 인간과 짐승의 가치적 위상이 뒤집히는 역설이다. 또한 짐승의 말이 등장하더라도 대화의 주고받음이나 감각적 묘사가 핵심인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물이나 사물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인간 사회를 비판하면 우화와 풍자를 먼저 판단한다. '역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간 순서의 변화인지, 가치나 위상의 반전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동물의 의인화로 인간을 비판하면 우화·풍자이고, 시간 순서를 바꾸어야 역전적 시간 구성이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시의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기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움이다.
(다)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담아 둘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탄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시를 감상하는 것은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 내는 것이다.
(라) 그리움이 담겨 있는 시가 많은 것은 그리움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다) - (나) - (라)
③ (다) - (가) - (나) - (라)
④ (다) - (나) - (가) - (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내용이 다양해지는 이유와 보편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정서를 설명하는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다) 시가 사람의 내면에 담아 둘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탄생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2. (가) 그 관점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이 다양하므로 시의 내용도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3. (나) '그러나'로 앞의 다양성과 대비하여, 누구나 지니는 보편적 마음도 있으며 그 대표가 그리움이라고 밝힌다.
4. (라) 그리움이 간절한 마음이므로 그리움을 노래한 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린다.

(다)의 시에 대한 기본 관점이 (가)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가)의 '다양함'이 있어야 (나)의 '그러나'가 대비를 이룬다. (라)의 '이렇게 볼 때'는 앞 논의를 종합하는 결론 표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라)는 '이렇게 볼 때'로 앞 내용을 종합하는 결론이므로 (다)보다 앞에 올 수 없다. 틀린 순서: (가)—(나)—(라)—(다) → 올바르게는 (다)—(가)—(나)—(라)이다.
② X. (다)는 시가 탄생하는 근본 관점을 제시하므로 (가)의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라는 설명보다 앞선다. 틀린 순서: (가)—(다)—(나)—(라) → 올바르게는 (다)—(가)—(나)—(라)이다.
③ O. (다)에서 시와 마음의 관계를 제시하고, (가)에서 마음과 시의 내용이 다양함을 설명한 뒤, (나)에서 보편적 정서인 그리움을 덧붙여 (라)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④ X. (나)의 '그러나'는 (가)에서 말한 마음과 시의 내용의 다양성과 대비를 이루므로 (가)가 (나)보다 먼저 와야 한다. 틀린 순서: (다)—(나)—(가)—(라) → 올바르게는 (다)—(가)—(나)—(라)이다.

오답 포인트

(나)의 '그러나'를 단순한 화제 전환으로 보면 (다) 뒤에 바로 배치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은 (가)의 '마음의 다양함'과 대비하여 누구나 지니는 보편적 마음을 제시하므로 반드시 (가) 뒤에 놓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순서 문제에서는 먼저 정의·관점을 제시하는 문단을 찾고, 다음으로 접속어와 지시어의 선행 내용을 연결한다. '그러나'는 대비할 앞내용 뒤에, '이렇게 볼 때'는 앞 논의를 종합하는 마지막에 배치한다.

암기 포인트

관점 제시 → 다양성 설명 → 그러나 보편성 제시 → 결론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의 ㉠~㉣을 <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시에서 개최하는 “△△시 취업 박람회”

1. 목적: ㉡ 지역 브랜드 홍보와 향토 기업 내실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행사 개요
가. 일자: 2023. 11. 11.
나. 장소: △△시청 세종홀
다. 주요 행사: 구직자 상담 및 모의 면접, ㉢ △△시 취업 지원 센터 활동 보고
3.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서 접수

<지침>
◯ 제목을 중복된 표현 없이 간결하게 쓴다.
◯ 목적과 행사 개요를 행사의 주요 대상인 지역민과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① ㉠을 ‘△△시 취업 박람회 개최’로 수정한다.
② ㉡을 ‘지역민의 취업률 제고’로 수정한다.
③ ㉢을 ‘△△시 소재 기업의 일자리 홍보’로 수정한다.
④ ㉣을 ‘행사 10일 전까지 시청 누리집에 신청서 업로드’로 수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안내문의 제목·목적·행사 내용·신청 방식이 제시된 작성 지침에 맞게 고쳐졌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내문 수정은 지침의 요구를 문장마다 대응시켜 판단한다. 제목에서는 중복을 덜어 간결하게 하고, 목적과 행사 내용에서는 지역민과 지역 기업을 중심에 두며, 신청 방식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제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시에서 개최하는'은 행사명 '△△시 취업 박람회'와 지역 정보를 중복하여 길게 만든다. 이를 '△△시 취업 박람회 개최'로 고치면 중복이 줄어 제목이 간결해진다.

② O: '지역민의 취업률 제고'는 행사의 수혜 대상을 지역민으로 분명히 하므로, 목적을 지역민 중심으로 작성하라는 지침에 맞는다.

③ O: '△△시 취업 지원 센터 활동 보고'는 행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기관 활동 보고이다. 이를 '△△시 소재 기업의 일자리 홍보'로 고치면 행사 개요가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제시된다.

④ X: '행사 10일 전까지 시청 누리집에 신청서 업로드'는 신청 방법을 시청 누리집이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제시한다. 틀린 표현은 '시청 누리집에 신청서 업로드'로 한정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전화 문의 등 신청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마감 시한을 덧붙여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지침의 핵심은 신청 시한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정안을 볼 때에는 지침의 각 요구를 제목·목적·내용·신청 방식에 하나씩 대조한다. 특히 '다양하게'라는 조건이 있으면 특정 수단 하나만 제시한 수정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목은 간결하게, 내용은 대상 중심으로,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제시한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부분을 고유어로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생님께서 오늘 영면(永眠)하셨다. → 돌아가셨다
② 공무원은 국민을 기망(欺罔)해서는 안 된다. → 속여서는
③ ○○시는 금명간(今明間) 공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일찍
④ 주무관들에게 회의 시간이 바뀌었다고 공지(公知)했다. → 알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어의 뜻을 문맥에 맞는 고유어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면은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고, 기망은 남을 속여 판단을 그르게 하는 일이다. 금명간은 오늘과 내일 사이 또는 아주 가까운 시일을 뜻하며, 일찍은 어떤 때보다 앞선 시간을 뜻한다. 공지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영면하셨다는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돌아가셨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O. 기망하다는 남을 속인다는 뜻이므로 '속여서는 안 된다'로 바꾸어 쓴 것이 적절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일찍'이다. 금명간은 오늘·내일 사이 또는 아주 가까운 시일을 뜻하므로 '곧' 또는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로 바꾸어야 한다. '일찍'은 예정된 때보다 앞선 시간을 뜻한다.
④ O. 공지했다는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는 뜻이므로 '알렸다'로 바꾸어 쓴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금명간을 막연히 '빠르게'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일찍'을 고르기 쉽다. 금명간은 속도의 뜻이 아니라 오늘·내일처럼 매우 가까운 시기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꿀 때에는 단어의 대략적인 분위기만 보지 않고, 시간·대상·행위처럼 문장에서 맡는 정확한 의미가 같은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금명간은 '금일과 명일 사이', 곧 아주 가까운 시일이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翩翩黃鳥 꾀꼬리
雌雄相依 암수 서로 정다운데
念我之獨 외롭구나 이내 몸은
誰其與歸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 유리왕, 「黃鳥歌」 —

(나) 秋風唯苦吟 가을바람에 오직 애써 시만 읊을 뿐
世路少知音 세상길에 날 아는 이 거의 없는데
窓外三更雨 창밖에는 한밤중 하염없는 비
燈前萬里心 등불 앞엔 만리를 달리는 마음

— 최치원, 「秋夜雨中」 —

① (가)의 '黃鳥'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한다.
② (나)의 '秋風'은 화자에게 외로움과 고뇌를 불러일으킨다.
③ (가)의 화자는 '相依'를 바라고, (나)의 화자는 '知音'을 그리워한다.
④ (가)의 화자는 '與歸'를 지향하려 하고, (나)의 화자는 '萬里心'을 벗어나려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황조가」와 「추야우중」에 드러난 화자의 외로움 및 핵심 시어가 가리키는 정서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황조가」의 화자는 서로 의지하는 황조를 보며 자신의 고독을 자각하고, 함께 돌아갈 상대를 바란다. 「추야우중」의 화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지음이 드문 현실에서 외로움과 고뇌를 느끼며, '만리심'으로 멀리 뻗어가는 마음을 드러낸다. '상의'와 '지음'은 모두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교감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황조'는 암수가 서로 정다운 모습으로 제시된다. 화자는 이를 보며 '외롭구나 이내 몸은'이라고 하므로, 황조의 모습은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한다.

② O. (나)의 '추풍'이 부는 상황에서 화자는 '오직 애써 시만 읊을 뿐'이라고 한다. 이어 '세상길에 날 아는 이 거의 없는데'라고 하여 외로움과 고뇌를 드러낸다.

③ O. (가)의 '상의'는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므로, 화자는 이를 부러워하며 함께할 상대를 바란다. (나)의 '지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화자는 세상에 지음이 거의 없음을 한탄한다.

④ X. (가)의 '여귀'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라는 뜻이므로, 화자는 함께 돌아갈 상대를 지향한다. 그러나 (나)의 '만리심'은 등불 앞에서 만리로 뻗어 가는 화자의 마음이지 벗어나려는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만리심을 벗어나려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화자가 만리심을 품고 있거나 그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여귀'와 '만리심'을 모두 화자가 피하려는 대상으로 처리한 점이 함정이다. '여귀'는 함께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고, '만리심'은 화자 안에 지속되는 멀리 뻗은 마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 시어는 화자의 태도와 함께 읽는다. '누구와 함께'처럼 결핍된 대상을 찾는 표현은 소망을, '등불 앞 만리심'처럼 화자에게 귀속된 마음의 표현은 화자가 품은 정서를 나타낸다.

암기 포인트

황조가: 정다운 황조를 보며 고독을 자각하고 동반자를 바란다. 추야우중: 지음의 부재 속 만리심을 품는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 어디 가 보았소?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아, 가지 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사리까? 제발 가지 마오.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 골병이 든답디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 마오." 흥보 자식들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처럼 고개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냐." "아버지 병영 다녀오실 때 나 담뱃대 하나만 사다 주오." "이런 후레아들 같으니라구." 또 한 놈이 나오며, "아버지, 병영 다녀오실 때 나 풍안 하나 사다 주시오." "풍안은 무엇 하게?" "뒷동산에 가서 나무할 때 쓰면, 눈에 먼지 한 점 안 들고 좋답디다." 흥보 큰아들이 나와 앉으며, "아고, 아버지!" "너는 왜 또 부르느냐?" "아버지 병영 다녀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시오." "각시는 무엇 하게?" "어머니 아버지 재산 없어 날 못 여위어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 할라요." 흥보가 병영 길을 허유허유 올라가며, 신세 한탄 울음 울며, "아고, 내 신세야. 누군 팔자 좋아 부귀영화 잘 사는데, 내 어이하여 이 지경인고?" — 「흥보가」에서 —

① 흥보는 병영에 가서 매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려 한다.

② 아내의 말을 들은 흥보는 매품팔이하는 것을 유보하려 한다.

③ 흥보 자식들은 병영에 가는 아버지에게 태연히 부탁하고 있다.

④ 흥보는 병영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흥부가」의 상황에서 흥부가 병영에 가려는 목적과, 이를 대하는 아내·자식·흥부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매품팔이는 매를 맞아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이다. 흥부는 생계를 위해 병영에 가려 하고, 아내는 곤장을 맞으면 골병이 든다며 이를 만류한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곤궁한 처지를 모르고 물건이나 각시를 사 달라고 부탁하며, 흥부는 길을 가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흥부는 가난으로 생계가 막힌 상황에서 병영에 가 매를 맞는 대가를 받으려 한다. 이는 매품팔이로 생계를 잇고자 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유보하려 한다'이다. 아내는 '가지 마오.'라고 흥부를 만류하지만, 흥부는 자식들의 부탁을 들은 뒤 병영 길을 올라간다. 실제로는 매품팔이를 유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려 한다.

③ O: 자식들은 아버지가 병영에 가는 고된 이유를 헤아리지 못한 채 담배, 풍안, 각시를 사 달라고 태연히 부탁한다.

④ O: 흥부는 병영 길을 가며 '내 어이하여 이 지경인고?'라고 말한다. 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아내의 만류를 흥부의 행동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아내는 흥부가 병영에 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흥부 자신은 결국 병영으로 향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가 제시된 고전 소설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와 그 뒤의 행동을 분리해 확인한다. 만류하는 인물과 실제로 행동하는 인물을 바꾸어 놓은 선지는 틀린 선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아내는 만류, 흥부는 매품팔이 실행, 자식들은 철없는 부탁, 흥부는 신세 한탄이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① 병민이는 소정(所定)의 금액을 기부했다.

② 사소한 일에도 관심(觀心)을 가져야 한다.

③ 감사의 표시(表視)로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

④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地役)에서 축제가 열린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정확한 표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어는 같은 음이라도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어의 뜻과 글자를 함께 확인한다.
소정(所定)은 '정하여진 바'라는 뜻이고, 관심은 關心, 표시는 表示, 지역은 地域으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정(所定)은 '정하여진 바'라는 뜻이다. 따라서 '소정의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라는 뜻이므로 한자 표기가 알맞다.

② X: 틀린 표현은 '관심(觀心)'이다. 관심은 마음을 관계한다는 뜻의 關心으로 쓰므로, 올바르게는 관심(關心)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표시(表視)'이다. 표시는 겉으로 드러내어 보인다는 뜻의 表示로 쓰므로, 올바르게는 표시(表示)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지역(地役)'이다. 지역은 일정한 땅의 구역이라는 뜻의 地域으로 쓰므로, 올바르게는 지역(地域)이다.

오답 포인트

②~④는 독음은 맞지만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바뀌어 있다. 특히 心·示·域처럼 뜻을 직접 드러내는 글자를 문맥과 연결해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표기 문제에서는 먼저 단어를 뜻으로 풀어 본 뒤, 그 뜻에 맞는 한자인지 확인한다. '마음'이면 心, '보이다'이면 示, '구역'이면 域처럼 핵심 글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정은 所定, 관심은 關心, 표시는 表示, 지역은 地域이다.

문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시대에는 여러 차례의 전란을 겪으며 서적의 손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서적을 대량으로 찍어낼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자연스레 금속활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려인은 청동을 녹여서 불상이나 범종 등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다. 이러한 고려인에게 금속활자를 제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진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를 사용했다. 이 모래를 상자 속에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목활자를 찍어 눌러서 틀을 완성했다. 그런 다음 황동 액체를 부어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고운 모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 모래는 황동 액체를 부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활자가 파손되거나 조잡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할 때는 목활자의 경우와 달리 유성먹이 필요했다. 하지만 고려인은 이미 유성먹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속활자를 사용한 인쇄도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다.

① 고려인은 범종을 만들 때 황동을 사용했다.

②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를 사용했다.

③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황동 틀을 사용했다.

④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와 달리 유성먹을 사용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문에 제시된 고려 금속활자의 제작 과정과 인쇄 과정의 사실을 정확히 대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속활자 제작은 고운 모래를 상자에 채우고 그 위에 목활자를 찍어 틀을 만든 뒤 황동 액체를 붓는 과정이다. 금속활자로 인쇄할 때는 목활자로 인쇄할 때와 달리 유성먹이 필요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은 고려인이 청동을 녹여 불상이나 범종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하였을 뿐, 범종을 만들 때 황동을 사용했다고 하지는 않았다. 틀린 표현은 '황동'이며, 올바르게는 '청동을 녹여 불상이나 범종 등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다'이다.
② O. 상자에 채운 고운 모래 위에 목활자를 찍어 눌러 틀을 완성하였으므로, 금속활자 제작에 목활자를 사용했다는 설명은 맞다.
③ X. 틀은 황동이 아니라 고운 모래에 목활자를 찍어 만든 것이다. 틀린 표현은 '황동 틀'이며, 올바르게는 '고운 모래로 만든 틀'이다. 황동은 액체 상태로 틀에 붓는 재료이다.
④ X. 유성먹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가 아니라, 만들어진 금속활자로 인쇄할 때 목활자의 경우와 달리 필요했다. 틀린 표현은 '만들 때'이며, 올바르게는 '금속활자로 인쇄할 때 목활자와 달리 유성먹이 필요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청동과 황동을 바꾸고, ③은 황동 액체와 모래 틀을 바꾸었다. ④는 '제작'과 '인쇄'의 단계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문 사실 확인 문제에서는 재료, 도구, 쓰임, 작업 단계를 각각 나누어 지문과 대조한다. 특히 '무엇으로 만들었는가'와 '언제 사용했는가'를 바꾼 표현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모래 틀에는 목활자, 틀에는 황동 액체, 금속활자 인쇄에는 유성먹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에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무속을 탄압했다. 도성 내에 무당의 거주와 무업 행위를 금하고, 무당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의료기관인 동서활인서에서도 봉사하게 하였다.
이 중에서 무세(巫稅)는 고려 후기부터 확인되지만,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해서 징수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실시한 무세 징수로 인해 무당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세 징수의 효과는 컸지만, 본래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무속을 근절한다는 명목에서 징수한 세금이 관에서 사용됨에 따라 오히려 관에서 무당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무당의 위세와 역할은 크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무당이 국가적 차원의 의례를 주관하던 전통은 사라졌고, 성황제를 비롯한 고을 굿은 음사(淫祀)로 규정되어 중단되었다.

① 무당은 관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도 얻었다.
② 무당은 치유 능력을 인정받아 의료기관에서 일하였다.
③ 무당은 고려와 조선에 걸쳐 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④ 무당은 국가 의례에서 배제되어 고을 의례를 주관하면서 권위가 약화되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시대 국가의 무속 통제와 무세 징수가 무당의 지위 및 의례에 미친 영향을 지문 내용에 맞추어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세는 무당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고려 후기부터 존재가 확인되지만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하여 징수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조선의 무속 정책은 거주와 무업을 금지하고 국가적 의례를 축소한 통제 정책이다. 다만 무세 징수는 세수 확보 때문에 관이 무당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의도 밖의 결과도 낳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무속을 근절한다는 명목의 무세 징수는 세수 확보를 위해 관이 무당을 직업으로 인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무속 억제라는 본래 의도와 다른 결과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치유 능력을 인정받아'이다. 지문은 무당이 의료기관인 동서활인서에서도 봉사하게 되었다고만 하며, 그 이유를 치유 능력의 인정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무당은 동서활인서에서도 봉사하게 되었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고려와 조선에 걸쳐 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이다. 무세의 존재는 고려 후기부터 확인되지만,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해 징수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고을 의례를 주관하면서'이다. 무당이 국가적 차원의 의례를 주관하던 전통은 사라졌고, 성황제를 비롯한 고을 굿도 음사로 규정되어 중단되었다. 올바르게는 국가적 의례와 고을 굿이 모두 축소·중단되면서 무당의 위세와 역할이 약화되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의료기관 봉사라는 사실에 '치유 능력 인정'이라는 원인을 덧붙인 선지이다. ③은 고려 후기의 무세 확인과 조선시대의 정식 제도화를 혼동하게 하며, ④는 고을 굿이 중단되었다는 결론을 '주관하였다'로 반대로 바꾼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시기와 인과관계를 분리해 확인한다. '고려 후기부터 확인'과 '조선시대부터 제도화'는 다른 사실이며, 지문에 없는 원인이나 중단된 의례를 계속 주관했다는 내용을 보태면 틀린 선지이다.

암기 포인트

무세는 고려 후기 확인, 조선 정식 제도화이다. 무속 통제는 세수 목적의 직업 인정이라는 역설을 낳았고, 국가 의례와 고을 굿은 축소·중단되었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옛 문헌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지금과 같은 가로쓰기가 아닌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다. 물론 외국인이 펴낸 대역사전이나 한국어 문법서의 경우, 알파벳을 쓰기 위해 가로쓰기를 택했다. 1880년에 리델이 편찬한 『한불자전』이나 1897년에 게일이 편찬한 『한영자전』은 모두 가로쓰기 책이다. 다만 푸칠로가 편찬한 『로조사전』은 러시아 문자는 가로로, 그에 대응되는 우리말 단어는 세로로 쓴 독특한 형태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은 1895년에 이준영, 정현,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가 편찬한 국한 대역사전 『국한회어(國漢會語)』이다. 국문으로 된 표제어를 한문으로 풀이한 것은, 국한문혼용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서문에는 글자와 행의 기술 방식, 표제어 배열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 방식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서적을 본뜬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놓았다. 주시경의 가로쓰기 주장이 1897년에 나온 것을 고려하면, 『국한회어』의 가로쓰기는 획기적이다. 1897년에 나온 『독립신문』은 띄어쓰기를 했으되 세로쓰기를 했고, 1909년에 발간된 지석영의 『언문』, 1911년에 편찬 작업을 시작한 국어사전 『말모이』 정도가 가로쓰기를 했다.

① 『한불자전』, 『로조사전』, 『언문』, 『말모이』는 가로쓰기 책이다.

② 1895년경에는 가로쓰기 사용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③ 가로쓰기가 시행되면서 국한문혼용과 띄어쓰기가 활성화되었다.

④ 『국한회어』는 가로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서양 책의 영향을 받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문에 제시된 책마다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사용 양상을 구분하고, 우리나라 가로쓰기의 등장 과정과 서양 서적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로쓰기는 글자를 가로 방향으로 배열하는 방식이고, 세로쓰기는 글자를 세로 방향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우리 옛 문헌은 주로 세로쓰기였지만 외국인이 편찬한 대역사전과 문법서는 알파벳을 쓰기 위해 가로쓰기를 택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은 1895년의 『국한회어』이며, 그 서문은 이 방식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 서적을 본뜬 것이라고 밝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한불자전』, 『언문』, 『말모이』는 가로쓰기를 했지만 『로조사전』은 러시아 문자를 가로로 쓰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 단어를 세로로 썼다. 틀린 표현은 '『로조사전』은 가로쓰기 책이다'이며, 올바르게는 '『로조사전』은 러시아 문자는 가로로, 우리말 단어는 세로로 쓴 책이다'이다.

② X
1895년의 『국한회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이었고, 1897년에 나온 가로쓰기 주장도 획기적이었다. 따라서 1895년경 국내에서 가로쓰기 사용이 이미 늘어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가로쓰기 사용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이며, 올바르게는 '당시에는 세로쓰기가 일반적이었고 1895년에 국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이 등장했다'이다.

③ X
국한문혼용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현상은 『국한회어』의 한문 표제어에 반영되었지만, 가로쓰기가 국한문혼용을 활성화한 것은 아니다. 또한 1897년 『독립신문』은 띄어쓰기를 했으나 세로쓰기를 했다. 틀린 표현은 '가로쓰기가 시행되면서 국한문혼용과 띄어쓰기가 활성화되었다'이며, 올바르게는 '국한문혼용과 띄어쓰기는 가로쓰기와 별개로 나타났으며, 띄어쓰기를 하면서도 세로쓰기를 한 사례가 있었다'이다.

④ O
『국한회어』의 서문은 글자와 행의 기술 방식 및 표제어 배열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방식이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서적을 본뜬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한회어』의 가로쓰기가 서양 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외국어가 가로로 쓰인 책 전체를 곧바로 가로쓰기 책으로 판단하면 ①을 놓치기 쉽다. 특히 『로조사전』은 러시아 문자와 우리말의 쓰기 방향이 서로 다르다. 또한 가로쓰기, 국한문혼용, 띄어쓰기가 같은 시기에 함께 정착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적별로 편찬 연도, 편찬자, 외국어와 우리말의 쓰기 방향을 각각 대응시킨 뒤, 지문이 직접 밝힌 인과관계만 인정한다. '최초', '늘어나는 분위기', '~하면서 활성화'처럼 범위나 인과를 확대하는 표현은 지문의 근거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1895년 『국한회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이며, 서양의 알파벳 서적을 본뜬 방식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부분의 '-기'의 문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수진이는 돌연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

② 경주마는 속도는 둘째치고 크기도 놀라웠다.

③ 나무가 굵기는 했지만 열매는 얼마 안 달렸다.

④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용언의 어간에 붙어 문장 안에서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와, 어근에 붙어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명사 파생 접미사 '-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사형 전성 어미 '-기': 용언의 활용형에 붙어 서술 기능을 지닌 명사절을 만든다. '먹기를 바란다', '달리기 때문에'처럼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등을 거느릴 수 있다.
명사 파생 접미사 '-기': 어근에 붙어 새로운 명사를 만든다. '크기'는 '큰 정도'를 뜻하는 하나의 명사이다.
결정적인 구별 기준은 '-기'가 서술 기능을 유지한 명사절을 만드는지, 사전에 실릴 만한 하나의 명사를 만드는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진이는 돌연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의 '보기'는 동사 '보다'의 어간 '보-'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붙은 형태이다. '허공을'이라는 목적어를 거느리며 '시작했다'의 목적어 구실을 하는 명사절이므로, ②와 달리 명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다.

② O
'크기도 놀라웠다'의 '크기'는 형용사 어근 '크-'에 명사 파생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로, '큰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이 '-기'만 나머지 선지의 명사형 전성 어미와 문법적 성격이 다르다.

③ X
'나무가 굵기는 했지만'의 '-기'는 형용사 '굵다'의 어간 '굵-'에 붙은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굵기는 하다'의 구성에서 '굵다'의 서술 기능이 유지되므로, ②와 달리 명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다.

④ X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의 '-기'는 동사 '달리다'의 어간 '달리-'에 붙은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토끼가'라는 주어와 '너무 빨리'라는 부사어를 거느린 명사절을 만들므로, ②와 달리 명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다.

오답 포인트

'크기'와 '달리기'가 모두 겉으로는 명사처럼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④의 '달리기'는 운동 종목을 뜻하는 명사가 아니라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리다'라는 서술 내용을 명사절로 바꾼 형태이다. 반면 ②의 '크기'는 '큰 정도'를 뜻하는 파생 명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 앞말이 주어·목적어·부사어 등을 거느리면서 서술 기능을 유지하면 명사형 전성 어미로 판단한다. '-기'가 붙은 말 전체가 특정 대상이나 정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명사로 굳어졌다면 명사 파생 접미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명사절을 만들면 전성 어미, 새 명사를 만들면 파생 접미사이다. 이 문항에서는 '보기·굵기·달리기'는 명사형이고, '크기'만 파생 명사이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벌에 쏘여 얼굴이 <u>부어</u> 있었다.
② 석공은 망치와 정으로 바위를 <u>부숴다</u>.
③ 소가 내 엉덩이를 <u>받아</u> 크게 다칠 뻔했다.
④ 요즘 운동을 못 해서 체중이 계속 <u>불고</u>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 나타나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붓다'와 '붇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각각 '부어'와 '불어'가 되지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받침을 유지한다.

핵심 개념

붓다: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며, 모음 어미 '-어' 앞에서 ㅅ이 탈락하여 '부어'가 된다.
붇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라는 뜻이며,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ㄷ이 ㄹ로 바뀌어 '불어'가 되지만 자음 어미 '-고' 앞에서는 '붇고'가 된다.
부수다·받다: 각각 '부수어→부숴', '받아'처럼 활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얼굴이 부풀어 오른다는 뜻의 '붓다'에 '-어'가 붙으면 ㅅ이 탈락하므로 '얼굴이 부어 있었다'가 맞다.
② O — '부수다'에 '-었다'가 붙은 '부수었다'는 '부숴다'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바위를 부숴다'가 맞다.
③ O — '받다'에 어미 '-아'가 붙으면 '받아'가 되므로 '내 엉덩이를 받아'가 맞다.
④ X — 틀린 표현은 '체중이 계속 불고 있다'이다. 체중의 양이 늘어난다는 뜻의 기본형은 '붇다'이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 앞에서는 ㄷ이 바뀌지 않으므로 '체중이 계속 붇고 있다'가 올바르다.

오답 포인트

'붇다'가 모음 어미 앞에서 '불어'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모든 활용에서 어간이 '불-'로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ㄷ 불규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만 나타나므로 '-고' 앞에서는 '붇고'라고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맥에 맞는 기본형을 찾고, 뒤에 붙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지 자음으로 시작하는지 확인한다. '붇다' 뒤에 '-어'가 오면 '불어', '-고'가 오면 '붇고'가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얼굴은 ‘부어’, 양은 ‘불어’; 그러나 ‘-고’ 앞에서는 ‘붇고’이다.

NoteBase

문 16. (가)~(다)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오후의 태양이 뜨겁게 (가) 하고 있었다.
◯ 만료된 비자를 (나) 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았다.
◯ 이번 무역 협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다) 되어 있다.

① (가): 작열, (나): 갱신, (다): 개재
② (가): 작열, (나): 경신, (다): 게재
③ (가): 작렬, (나): 갱신, (다): 게재
④ (가): 작렬, (나): 경신, (다): 개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 비슷한 한자어인 작열·작렬, 갱신·경신, 개재·게재의 뜻과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작열은 불이나 햇볕 등이 몹시 뜨겁게 내리쬐는 상태이고, 작렬은 포탄·탄환 등이 터지거나 꽃 등이 활짝 피는 상태이다.
갱신은 기간이 끝난 계약·허가·자격 등을 다시 유효하게 하는 것이고, 경신은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거나 새로이 하는 것이다.
개재는 어떤 일이나 사물 사이에 끼어 있거나 끼어들어 있는 것이고, 게재는 글·그림 등을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싣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뜨거운 태양은 '작열'하고, 만료된 비자는 다시 유효하게 하는 '갱신'의 대상이며, 협상에 끼어 있는 변수는 '개재'되어 있다고 한다. 세 낱말의 쓰임이 모두 알맞다.
② X: '경신'과 '게재'가 틀렸다. 만료된 비자를 다시 유효하게 하는 것은 '갱신'이고, 수많은 변수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개재'이다.
③ X: '작렬'과 '게재'가 틀렸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것은 '작열'이고, 변수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개재'이다.
④ X: '작렬'과 '경신'이 틀렸다. 태양에는 '작열'을, 만료된 비자에는 '갱신'을 쓴다. '개재'는 알맞다.

오답 포인트

'작열'과 '작렬'은 모두 강한 상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햇볕이 뜨거운 것은 작열이고 폭발하거나 꽃이 피는 것은 작렬이다. 또한 '개재'를 '글을 싣다'라는 뜻의 게재와 바꾸지 않도록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속 대상부터 확인한다. 햇볕·열기에는 작열, 계약·비자처럼 유효 기간을 다시 잇는 일에는 갱신, 여러 요소가 사이에 끼어 있음에는 개재를 적용한다. 글을 매체에 싣는 경우에만 게재를 쓴다.

암기 포인트

해가 뜨거우면 작열, 비자는 갱신, 변수는 개재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법을 자유와 대립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법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법 없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주장했던 자유 지상주의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몽테스키외는 인간이 법과 동시에 자유를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이 법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 한다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정처 없는 노예처럼 된다고 하였다. 자유는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결국 자유와 법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① 법은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② 자유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도 확립될 수 없기

③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는 법에 의해서만 확립될 수 있기

④ 법과 자유가 있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 자유,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의 관계를 글의 인과관계에 맞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유는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이며, 글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본다. 법은 그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조건이므로, 법이 없으면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은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는 법의 효과를 단지 가능성의 증가로만 말하여,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결론을 직접 뒷받침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이며, 올바르게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는 법에 의해서만 확립될 수 있기'이다.

② X. 글은 올바른 사회질서가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유가 사회질서 확립의 조건이라는 진술은 인과관계를 뒤집었다. 틀린 표현은 '자유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도 확립될 수 없기'이며, 올바르게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가 없으면 자유도 보장될 수 없기'이다.

③ O.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되고, 그 사회질서는 법에 의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의 이유로 적절하다.

④ X. 글은 법이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그 사회질서가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므로, 법과 자유가 이미 있을 때 사회질서가 확립된다는 진술은 조건과 결과를 뒤집었다. 틀린 표현은 '법과 자유가 있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이며, 올바르게는 '법에 의해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가 확립되면 자유가 보장되기'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사회질서와 자유의 선후 관계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글의 전개는 법 →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 → 자유의 보장 순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의 결론이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이면, 빈칸에는 법이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이유가 와야 한다. 앞문장에 제시된 '자유는 올바른 사회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조건을 다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법 → 올바른 사회질서 → 자유의 보장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육각형의 벌집 모양은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디자인이다. 이 벌집의 과학적인 구조는 역사적으로 경탄의 대상이었는데, 다윈은 벌집을 경이롭고 완벽한 과학이라고 평가했다. 벌집의 정육각형 구조는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다. 이 구조는 (가)는 이점이 있다. 벌이 밀랍 1온스를 만들려면 약 8온스의 꿀을 먹어야 한다. 공간이 최적화됨으로써 필요한 밀랍의 양이 줄어, 벌집을 짓는 데 드는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된다. 이처럼 벌집은 과학적으로 탄탄하고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디자인이다. 게다가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견고하고 가볍고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기까지 한 이 구조를 닮은 건축 양식이나 각종 생활용품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나)는 뜻이다.

① (가): 벌집을 짓는 데 소요되는 노동량을 최대화한다
(나):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

② (가): 벌집을 짓는 데 소요되는 노동량을 최대화한다
(나): 인간이 만든 디자인은 자연이 만든 디자인보다 뛰어날 수 없다

③ (가): 벌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든다
(나):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

④ (가): 벌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든다
(나): 인간이 만든 디자인은 자연이 만든 디자인보다 뛰어날 수 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앞뒤 문장의 근거를 연결하여 빈칸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맥상 빈칸 추론은 빈칸 앞뒤에 제시된 원인·결과와 예시가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을 고르는 방식이다. (가)는 공간 최적화로 밀랍과 노력·에너지가 줄어드는 이점이고, (나)는 벌집 구조를 닮은 건축·생활용품의 사례가 뜻하는 생체 모방의 영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노동량을 최대화한다'가 틀리다. 지문은 필요한 밀랍이 줄어 벌집을 짓는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된다'고 하였다. (가)는 '벌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든다'가 알맞다. (나)는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는 뜻으로 맞지만, (가)가 틀려 선지 전체는 틀리다.

② X
(가)의 '노동량을 최대화한다'가 틀리며, 올바르게는 필요한 밀랍의 양이 적게 든다는 내용이다. 또한 (나)의 '인간이 만든 디자인은 자연이 만든 디자인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지문에 없는 우열 비교이다. 올바르게는 벌집 구조가 건축 양식과 생활용품에 영감을 주었다는 뜻이다.

③ O
(가)는 공간이 최적화되어 필요한 밀랍의 양이 줄고, 그 결과 벌집을 짓는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된다는 문맥과 일치한다. (나)는 벌집 구조를 닮은 건축 양식과 생활용품이 흔하다는 사례에서, 자연의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④ X
(가)는 맞지만, (나)의 '인간이 만든 디자인은 자연이 만든 디자인보다 뛰어날 수 없다'가 틀리다. 지문은 자연의 벌집을 닮은 인간의 디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제시할 뿐, 자연과 인간 디자인의 우열을 단정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가)에서 '최대화한다'라는 표현에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지문은 '필요한 밀랍의 양이 줄어'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된다'고 명시한다. (나)에서도 닮은 건축물과 생활용품의 사례를 자연 디자인의 절대적 우월성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처럼 결과를 묻는 빈칸은 바로 뒤의 원인·결과 문장에서 근거를 찾는다. (나)처럼 사례 뒤의 빈칸은 그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 주는 의미를 고르며, 지문에 없는 비교·단정 표현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벌집의 육각형 구조는 공간은 최대화하고 밀랍·노력·에너지는 최소화한다. 벌집을 닮은 생활용품은 자연이 인간 디자인에 준 영감의 사례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 과정을 거친다. 언어의 변화 원인에는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단어의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단어의 의미 변화는 대략 세 유형으로 나뉜다. '뫼(메)'는 '밥' 또는 '진지'를 뜻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사 때 신위 앞에 올리는 진지로 국한해서 쓰이고 있다. '지갑'은 원래 종이로 만든 것에만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가죽이나 헝겊 따위로 만든 것도 모두 포함해서 사용한다. '어여쁘다'는 본래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로 그 뜻이 바뀌었다.

① '지갑'의 의미가 변화한 것은 언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② '얼굴'은 '형체'를 뜻하였으나 '안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뀐 것은 '지갑'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③ '인정'은 '뇌물'을 뜻하였으나 '사람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어여쁘다'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④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를 지시하였으나 무생물에도 사용하게 된 것은 '뫼(메)'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어 의미 변화의 세 유형인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이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미 축소는 원래 넓던 의미 범위가 좁아지는 변화이다. '뫼(메)'가 일반적인 밥·진지에서 제사 때 신위 앞에 올리는 진지로 한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미 확대는 원래 좁던 의미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이다. '지갑'이 종이로 만든 것뿐 아니라 가죽·헝겊으로 만든 것까지 가리키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미 이동은 단어의 의미가 본래 뜻과 다른 뜻으로 바뀌는 변화이다. '어엿쁘다'가 '불쌍하다'에서 '아름답다'로 바뀐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미 축소는 범위가 좁아지고, 의미 확대는 범위가 넓어지며, 의미 이동은 뜻의 중심이 달라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갑'의 변화는 종이로 만든 것에 한정되던 대상이 가죽·헝겊으로 만든 것까지 넓어진 의미 확대이다. 그러나 제시문은 이 변화의 원인이 언어적 원인인지 사회적 원인인지 밝히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언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이며, 올바르게는 '제시문만으로는 의미 변화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이다.
② X. '얼굴'이 '형체'에서 '안면'만을 가리키게 된 것은 의미 범위가 좁아진 의미 축소이다. '지갑'은 의미 범위가 넓어진 의미 확대이므로 유형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지갑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이며, 올바르게는 '뫼(메)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이다.
③ O. '인정'이 '뇌물'에서 '사람의 감정'으로 뜻이 바뀐 것은 의미 이동이다. '어엿쁘다'도 '불쌍하다'에서 '아름답다'로 뜻이 바뀐 의미 이동이므로 두 변화 유형이 같다.
④ X. '다리'가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에서 무생물의 다리까지 가리키게 된 것은 적용 대상이 넓어진 의미 확대이다. '뫼(메)'는 의미가 제사 때의 진지로 한정된 의미 축소이므로 유형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뫼(메)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이며, 올바르게는 '지갑의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각각 의미 축소와 의미 확대를 다른 예와 연결하면서 비교 대상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①은 의미 변화의 유형과 원인을 혼동하게 하며, 제시문에 없는 원인을 단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래 가리키던 대상의 범위와 바뀐 뒤의 범위를 비교한다. 범위가 좁아지면 의미 축소, 넓어지면 의미 확대, 범위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뜻 자체가 달라지면 의미 이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뫼(메)는 한정되어 축소, 지갑은 포함 범위가 넓어져 확대, 어엿쁘다는 뜻이 달라져 이동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셸 교수는 '마시멜로 실험'을 하였다. 아동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주겠다고 한 뒤 아이가 못 참고 먹는지 아니면 끝까지 참는지를 관찰하였다. 아이들이 참을성을 발휘한 시간은 평균 2분이었지만, 25%의 아이들은 끝까지 참아 내 마시멜로를 더 먹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12년이 지나서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이다. 1분 이내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15분간 참을성을 발휘한 아이들은 1분 이내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보다 대학 진학 시험 점수 평균이 훨씬 더 높았다. 이 실험 결과는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큰 사람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후 비슷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마시멜로에 뚜껑을 덮어 두고 기다리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실험 결과 뚜껑이 없이 기다리게 했던 경우보다 뚜껑을 덮었을 때 두 배 가까이 더 아이들이 잘 참을 수 있었다. 뚜껑 하나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아이들의 참을성을 크게 향상시킨 셈이다.

①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② 자기 통제력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

③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④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유아기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마시멜로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통제력과 환경 요인의 관계를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자기 통제력은 즉각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여 목표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이다. 지문은 뚜껑을 덮어 둔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아이들이 더 잘 참았다는 결과를 제시하므로, 자기 통제력의 발휘에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환경의 영향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선천성의 정도나 양육 환경의 원인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실험은 환경 단서가 참을성 발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을 뿐,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상관관계나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틀린 표현은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이며, 올바르게는 '환경 단서의 차이가 자기 통제력 발휘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다.

② X
지문은 뚜껑이라는 환경 변화가 참을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만 보여 준다.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큰지는 비교·검증하지 않았다.
틀린 표현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이며, 올바르게는 '자기 통제력의 발휘에는 후천적 환경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이다.

③ O
뚜껑을 덮어 둔 경우에 아이들이 뚜껑 없이 기다린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더 잘 참았으므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X
지문에는 유아기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의 정도가 자기 통제력과 관련된다는 자료가 없다. 또한 대학 진학 시험 점수의 차이를 유아기 양육 환경의 차이로 곧바로 설명할 수도 없다.
틀린 표현은 '유아기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다'이며, 올바르게는 '환경 단서는 자기 통제력 발휘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환경의 영향이 확인된 사실을 선천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이라는 결론으로 확대한다. ①과 ④도 지문에 없는 환경의 원인이나 양육 경험을 덧붙인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험 지문에서는 실제로 조작한 조건과 그 결과만 연결한다. 한 환경 조건을 바꾸어 결과가 달라졌다면 그 조건의 영향은 추론할 수 있지만, 비교하지 않은 다른 원인이나 영향력의 크기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실험에서 확인한 조건의 영향은 추론하고, 지문에 없는 원인·상관관계·우열 비교는 경계한다.

NoteBase